

민주-安, 10월 재보선 주도권 승부수 띄우나

안 “전지역 후보 내겠다” 독자 세력화 민주 “더 이상 양보 않겠다” 정면 승부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독자 세력화에 나선 안 의원 측이 “10월 재·보선에서 전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며 기세를 올리자, 민주당도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향후 야권 재구성 과정의 주도권을 둘러싼 1차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명운을 건 일전을 벌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고조되는 전면전 분위기>=불은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 먼저 불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민주당과의 연대 보다는 독자세력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는 10월 재보선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풍(안철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

당과의 일전에 나서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전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4·24 노원병 보궐선거 때와 같이 민주당이 후보를 양보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중 승부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재·보선 기획단을 조기에 출범시키고 인재 영입 및 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10월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연대나 후보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진영이 10월 재보선에서 야권의 맹주 자리를 놓고 한 판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호남이 승부처>=야권의 심장인 호남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진영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호남지역 재보선에서 패할 경우, 정치적 지지 기반 붕괴로 인해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호남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력을 총동원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 민주당은 홀로 설 수 있는 동력을 잃는 셈”이라며 “일단 호남의 10월 재보선 지역이 많아야

한 두 곳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는 호남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려 안풍의 실체를 증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안 의원 측에서는 호남에 출전할 후보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이외의 타지역 재보궐 선거에서의 순위 경쟁도 핵심 변수다. 당선된다면 좋겠지만 최소한 2위를 차지해야 야권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호남을 제외하곤 타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3위로 처지는 진영은 정치적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9대 국회 광주·전남의원들 ‘법안발의’ 실적보니

19명이 369건 발의...가결은 29건 그쳐 “질보다 양 치중”...‘묻지마 법안’ 지적도

19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 발의의 크게 늘었지만, 가결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의정활동 실적 향기를 위한 이른바 ‘묻지마 법안 발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일보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19대 국회의원 법안 대표발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의원 19명(광주 8명·전남 11명)이 지난 1년간 대표 발의한 건수는 모두 369건(광주 129건·전남 240건)이었다.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폐기·부결·철회 처리된 것을 제외한 원안 또는 수정 가결 법안·대안 변경 등 실제 분회의를 통과해 처리된 비율은 7.85%(29건)에 그쳤고, 대부분이 상임위 등에 계류중이다. 이는 법안 10건 중 1건도 분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꼴이다. 상임위에서 폐기 또는 철회된 법안 비율은 6.7%(25건)였다.

정활동 점수를 반영하면서 의원들이 입법 성적을 의식해 질 보다는 양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지역 의원 개인별로 보면 김동철 의원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강기정·장병완 의원이 각 19건을 발의했다. 이어 이용섭(17건)·박주선(12건)·박해자(11건)·임내현(9건) 의원이 뒤를 이었고, 오병윤 의원은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 중 강기정 의원의 대표 발의한 여신전통문화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만이 수정가결 됐으며,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은 대안 변경(유사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가결)으로 폐기됐다. 전남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54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주승용 의원 36건이었다. 박지원·김선동 의원은 각 4건으로 11명의 전남 의원 중 발의의 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 5건과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 그리고 김승남·김성곤·이윤석·황주홍 의원의 법안 각 1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또한, 우윤근·배기운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각 4건씩과 이낙연 의원 3건, 주승용·이윤석 의원 각 2건이 대안 반영됐을 뿐 나머지는 계류중이거나 폐기·철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오른쪽), 신경민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배정 이후 첫 외부활동으로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3 보건의료산업 제2차 노사공동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필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이번엔 제발 처리 좀 하라!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100만 도민 서명운동 나선다

전남교육청·전남도 등 오늘 선포식·결의문 채택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하 농특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이 본격 전개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8일 오전 무안군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전남서명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100만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서명운동본부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재부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이성웅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조춘기 농어촌교육발

전특법추진단장,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농특법 지지 여론형성과 확산, 의견수렴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한다. 농특법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과 농어촌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이낙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변단위 초·중·고 통합학

교 1개 이상 운영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소규모 학교 운영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농어촌 주민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학교 교직원 특별임용과 정원 확보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전남도민의 20년 숙원인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시민사회단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18 왜곡·폄하 법률적 대응 지원 광주지방변호사회 28명 특위 상시 운영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하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28명의 회원으로 ‘5·18 민주화운동 법률적 대응지원단’(위원장 정갑주)을 구성했다. 또 상시적인 폄하·왜곡행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변호사회 산하에 ‘5·18 민주화운동 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7일 회의에서 일부 종편 및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을 폭넓게 논의, 이 같이 결정하고 대응지원단 내에 민

사·형사·법률 및 제도개선분과를 설치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광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왜곡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입수, 형사고소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28일부터 각 지역위원회별로 8개 지역을 선정해 출·퇴근시간을 이용해 5·18 역사왜곡 바로잡기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ECO GEO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3 04.20-10.20

호남 지역 농·축수 특산품과 함께하는 제2회 아줌마 축제

2013 06.07-06.09 3일간 | 순천 팔마경기장

행사안내

첫째날	6월 7일(금요일) 축하공연 19:00~21:00 시군예술단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예선) 시농송대회 농산물개장식 식전공연(난타) 개막식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둘째날	6월 8일(토요일) 시군예술단공연 나도스타 다문화가족 장기자랑(본선) 아줌마가요제(예선) 추억의7080콘서트
셋째날	6월 9일(일요일) 시군예술단공연 아줌마골든벨 환상의 매직쇼 아줌마댄스 경연대회 아줌마가요제결선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홍보판매부 운영자모집

- 선착순 모집배치
- 참여자격: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 참가문의: 062)220-0555

주최: 순천시, 광주일보사
주관: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아리코커뮤니케이션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 수협, KB금융그룹, NH농협 광주지역본부, NH농협 전남지역본부

경연장신청: http://cafe.daum.net/azim2 | 문의사항: 062-220-0555